

# 바이오산업 · 중재의료기기 성장 협력

### 전주시, 전북대 · 7개 중재의료기기 기업과 '전주 바이오산업 기반 조성 ·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가 지역거점대학인 전북대학교, 국내 중재의료기기 관련 7개 대표 기업들과 손을 맞잡고 바이오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사업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해당 기업들은 동국생명과학(주), (주)브이비이오, (주)지바이오, (주)에스아이메드, (주)S&G바이오텍, (주)계기텍, (주)IDM으로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소재 중재의료기기 기업들이다.

시는 3일 전라감영 선화당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송철규 전북대학교 연구부총장, 권덕철 전북대 석좌교수(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찬희 전북대 교수, 7개 중재의료기기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바이오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중재의료기기는 카테터와 스텐트 등 환자를 수술할 때 절개를 최소화하거나 인체 구조물을 최대한 보존하며 병변을 진단·치료하는 중재의료기술에 사용하는 기기이다.

카테터는 위, 창자 등의 장기 속에 넣어 상태를 진단하거나 약물 등을 주입할 때 쓰이고, 스텐트는 혈관을 뚫고 지나가도록 설계된 그물판 장치로 심장질환, 뇌질환에 사용되는 기구이다.

이 자리에서 협약에 참여한 산·학·관 대표들은 △중재의료기기 및 바이오분야 공동연구개발 및 제품



전주시는 3일 전라감영 선화당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송철규 전북대학교 연구부총장, 권덕철 전북대 석좌교수(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찬희 전북대 교수, 7개 중재의료기기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바이오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화·사업화 △기업 활용 공간 및 시설 지원 협력 △기업 분사 또는 연구소 등의 전주 이전 △중재의료기기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 시와 전북대는 지난해 중재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 지원을 하는 국내 유일의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융합 연구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2026년까지 연구센터에서 개발된 기술에 대해 임상시험 전 실증화를 진행하는 실증센터도 구축하게 되면, 혁신중재의료기기 전

과정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시는 이러한 시설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북대, 국내 대표 중재의료기기 기업들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전주를 차세대 혁신중재의료기기 중심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송철규 전북대 연구부총장은 "우리 전북대는 탄소나노소재를 활용한 중재적 메카노바이오 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센터를 통해 도시형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을 목표로 기업들의 제품화 전 주기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전주시가 중재적 메카노바이오 융합기술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대학교, 중재의료기기 기업들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사업화와 일자리 창출 등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전주시가 바이오산업이라는 신성장 동력을 활용해 강한 경제 전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장은성 기자

## '다함께 즐겨요! 가정의 달'

### 전주시 어진박물관, 5-7일 어린이날 연휴 특별행사 진행

전주시 어진박물관이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특별행사를 마련했다. 어진박물관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경기전 부속채에서 가정의 달 특별행사인 '다함께 즐겨요! 가정의 달'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어진 컬러링 대회 △경기전 포토박스 △정답 찾아 삼만리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먼저 △어진 컬러링 대회는 태조, 영조, 정조 세 분의 임금 어진 도안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색칠 및

전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즐길 수 있다. 행사 종료 후에는 어진박물관 직원들이 개성이 넘치는 10개의 우수작품을 선정해 상품을 증정하고, SNS에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연휴 3일 동안 경기전 부속채에서는 △사진기를 통해 추억을 남기는 '경기전 포토박스' △경기전 곳곳에 숨겨진 미션코드를 찾아 활동지 속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 찾아 삼만리' 등이 운영된다. /김옥기 기자

## 전주시, 이탈리아와 문화교류 확대 방안 모색

### 이탈리아 피렌체 한국영화제 조직위원장, 전주국제영화제 기간 전주 방문

전주시가 유럽 문화의 중심지인 이탈리아와 문화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시는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기간 전주를 방문 중인 리카르도 젤리 이탈리아 피렌체 한국영화제 조직위원장과 문화교류 확대 방안 및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리카르도 젤리 위원장은 우호도시인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20년 이상 한국 영화제를 개최하면서 이탈리아와 유럽에 한국 영화를 소개해 온 인물로, 대한민국 명예영사이자 대표적인 K-컬처 홍보대사로 손꼽힌다.

리카르도 젤리 조직위원장은 이번 전주 방문에서 전주시 관계자와 정준호 공동집행위원장 등 전주국제영화제 관계자 등을 만나 전주국제영화제와 피렌체 한국영화제 간 교류도 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전주시 주요 인사와 더불어, 전주천년한지관장, 전



주대학교 한식조리학교 교수진 등과 만나 이탈리아 플로렌티 종이(피렌체 종이)와 미식으로 유명한 피렌체 지역 대학, 패션스쿨, 호텔조리학교 등과의 교류를 위한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리카르도 젤리 피렌체영화제 조직위원장은 "그간 지속해온 양 도시 간 교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K-콘텐츠 및 전주국제영화제를 활용해서 이탈리아 그리고 유럽 전역에 전주시는 도시가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문 열다

### 실내놀이터 · 작은도서관 · 공연장 등 다양한 이용시설 갖춰

전주혁신도시 주민들의 마을사랑방이자, 어린이와 청소년이 꿈을 키울

거점 공간이 문을 열었다. 전주시는 3일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



전주시는 3일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혁신동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의 여는 날 행사를 가졌다.

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혁신동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과 어린이·청소년 중심의 복합문화거점공간으로 조성된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의 여는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개관을 축하하는 기념행사에 이어 부대행사로 동화인형극과 벚꽃 마스크 스트랩 만들기, 3D펜 체험, 캘리그래피로 우리집 가훈 만들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진행됐다.

덕진구 장동에 위치한 복합문화센터는 총사업비 167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5547㎡ 규모로 지어졌으며, △영유아·어린이 실내놀이터 △어린이·청소년 대상 창작실 △작은도서관 △공연장 △다목적 연습실 △동아리방 등의 시설을 갖춰다 복합문화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단, 어린이 대상 시설의 경우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관일이다.

충별 주요시설을 살펴보면 먼저 영·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공간인 1층(연면적 1413㎡)에는 △영유아 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어린이 책가지 △카페 등이 들어서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 위주의 공간인 2층(연면적 967㎡)은 △어린이창작기지(모아) △청소년 책가지 △청소년 창작기지 △청소년 비밀기지 △기차마루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가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모험과 상상력을 키우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 욕구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간을 제공해 전주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휴비스 전주공장, 아동 도서 지원 성금 1000만원 기탁

(주)휴비스 전주공장은 3일 전주시청을 찾아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맞춤형 도서를 지원하는 '지혜의 반찬' 사업을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지혜의 반찬' 사업이란 초·중·고등학생 희망도서 지원 사업으로 1년간 2회에 걸쳐 1,000명에게 4,000권의 책을 기증한다.

(주)휴비스 전주공장은 지난 2015년부터 연간 2회에 걸쳐 전주시청을 찾아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엄마의 밥상'과 '지혜의 반찬' 사업에 각각 1000만 원씩 연간 2000만



원의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이날 기부금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누적 후원금은 1억 6000만 원에 달한다.

/김옥기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